

대한속기협회소식



제1호 '97.6.14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 지대섭/편집인: 김선옥/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전화: 788-2371~7 FAX: 788-3386~7

창간사

『대한속기협회소식』지 창간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속기 가족 여러분!

전국의 속기인을 위한 협회 소식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협회 소식지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회원들 사이에 유대를 돈독히 하고, 정보교환과 직무의 발전이 한결 가속화되기를 바랍니다.

속기인들로 구성된 본협회는 1955년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이 융성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記錄報國의 사명감과 史官의 자세로 묵묵히 의회사를 기록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더욱 분발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회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회원들의 삶과 연결되는 영역의 대부분의 소식을 알리는 장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회원 상호간에는 사통팔달의 통로가 됨은 물론 회원들의 크고 작은 일상의 소식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에 회원들의 힘이 뭉쳐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유대와 단합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1997. 6. 14

회장 池大燮

축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대화의 광장 되기를

친애하는 전국의 속기사 여러분!

이번에 대한속기협회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소식지>가 창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을 비롯한 정부답변 등 모든 의정활동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속기사들이 사관적(史官的)인 역할과 임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자에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각급 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속기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는 일차적으로는 역사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각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분석해 낸다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기 업무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속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속기사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에 더욱 큰 자부심을 갖고 각자 실력을 연마해 나가는 한편, 속기방법을 더욱 과학화·효율화하는 데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소식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는 대화와 토론의 광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소식지>의 탄생을 축하하며 속기사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金 守 漢



속기문화 발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해

신록이 푸르른 6월을 맞이하여 速記文化 발전을 위한 속기이론의 연구·발표와 모든 속기인들의 친교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한속기협회 소식》지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속기인들이 국회와 각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진실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朝鮮王朝實錄이 우리 민족의 훌륭한 자산이듯이 오늘날 속기인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현정사의 기록은 영원히 이 나라의 史庫를 장식해갈 또 하나의 소중한 민족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속기인들은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 열리는 회의 내용을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되고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을 또한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속기인들의 막중한 임무를 감안할 때 이번에 창간되는 소식지는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 이론개발을 통한 속기환경에의 적응,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속기인의 권익옹호 등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함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더할 나위없는 좋은 媒介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속기문화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속기인들의 사기양양과 속기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의 발행이 대한속기협회 활성화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한번 《대한속기협회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의 발자취

우리말 속기는 우리 나라의 근대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1904년 박여일이 우리 나라 사상 처음으로 조선속기법을 창안한 이후 우리의 속기술은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는 동안 제대로 연구, 발전을 해 보지도 못한채 크게 위축되었다가 8.15 해방 이후 여러 종류의 실용적인 속기법식이 새로이 고안, 발표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을 계기로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던 속기계는 6.25전쟁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국회·지방의회·언론기관 등에서 속기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속기사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속기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어 마침내 1955년 11월13일 대한속기학술협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4.19와 5.16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함께 비운을 맞이하던 속기계는 군사정권하에서 그 맥을 간신히 유지하여 오다가 제3공화국 수립과 함께 다시 활로를 찾게 되었으며, 1966년 12월 10일 대한속기협회를 재건하였다.

이후 협회는 무료 속기강습을 개최하는 등 속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속기문화》를 창간하여 속기인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전국 속기인들의 유일한 단체로서 1969년 4월 14일 속기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사단법인 허가를 문화공보부로부터 얻어내 우리 나라 속기계 발전의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1970년 4월 30일에는 협회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 증대를 위해 《속기계》가 창간되었고, 그 해 5월 17일에는 제1회 전국속기기자자격검정시험과 제1회 전국속기경연대회를 열어 회원들의 단합을 과시했으며, 9월7일에는 광복25주년기념속기전시회가 개최되어 국회 및 일반으로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다.

한편 1973년 5월 4일에 대한속기협회 마크가 제작된데 이어 1976년 9월 20일에는 국회 사무처 재직 회원중 10명이 법원으로 전직을 하기도 했으며, 1983년 7월 14일 제35차 국제속기기자연맹(INTERSTENO)에의 참가를 계기로 대한속기협회는 그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시작했다.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속기의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졌지만 초창기에 비해 별다른 활동이 없어 협회는 일시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체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속기인의 수요로 전국은 속기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속기열풍은 무분별한 학원의 과열강습과 통신교육으로 이어지기도 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이 속출하기도 했던 까닭에 이것은 앞으로 협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그런 가운데 협회는 1993년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여 전국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샀을 뿐 아니라 이때를 전후하여 보다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화·과학화시대를 맞아 기계속기도 등장, 1995년 8월 들어 국회에 4명의 컴퓨터속기사가 첫 진출하게 되었다.

대한속기협회는 지난 2월 22일 지대섭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9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 속기인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속기인의 총 집결체로서 속기문화 학술연구의 발전 및 보급과 속기인의 자질향상을 꾸준히 도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연혁

- | | | | |
|-----------|--|--------------|----------------------------|
| 55.11.13 | 大韓速記學術協會 창립 | 70. 4.30 | “速記界” 창간호 발간 |
| 57. 4.27 | 大韓速記協會로 개칭 | 5.17 | 제1회 전국속기기자자격검정시험 |
| 66.12.10 | 창립총회(新聞會館) | | 제1회 전국속기경연대회 |
| 67. 1. 7 | 제5차 이사회,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 9. 7 | 광복25주년기념속기전시회 개최 |
| 1.30-2.19 | 제1회 무료속기 강습 | 12.14 | 동아일보 속기강습(언론기관 강습) |
| 4.29 | 제1회 정기총회(F.Y. 67.5.1~68.4.30) | 71. 4.17 | 제1회 속기인체육대회 |
| 5. 1 | 《速記文化》 창간 | 73. 5. 4 | 협회 「마크」 제작 |
| 68. 5.20 | 제3회 임시총회 | 76. 9.20 | 국회사무처 회원 10명 法院으로 전직 |
| | 법인체 설립을 위한 발전적 해체,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로 발족시킬 것을 의결 | 83. 7.14 ~25 | 제35차 국제속기기자연맹 참가 |
| 6. 4 | 가칭 사단법인 大韓速記協會 창립총회 | 93. 6.12 |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 및 제4회 전국속기경기대회 |
| 69. 4.14 | 文化公報部에서 社團法人體로 안가(138호) | 95. 7. 2 | 속기인 환경보호 및 친선 동반대회(도봉산) |
| | | 96.11.16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실무세미나 개최 |

동정

제30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의욕적인 사업계획에 회원들 사기 크게 고조

지난 2월 22일 14시 대한속기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 1996년도 결산과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회 재적회원 260명중 총 185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이번 총회는 그야말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잔치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은 지부 설립, 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시험 주관부서를 협회로 이관하는 문제, 지방의회 속기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문제, 협회발전기금 확보문제 등이었고, 협회는 이들 사업에 가장 큰 역점을 두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 협회는 올해부터 9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금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북 무주에서 개최될 '속기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속기경기대회, 속기학술연구, 《속기계》와 《한국속기50년사》 발간, 인터스테노 참가, 속기인 친목활동, 협회지부 결성 및 조직 정비사업 등등 그 이름만 들어봐도 올해 협회의 각오가 얼마나 의욕적이면서 새로운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회원들 각자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많은 사업이 정부 보조금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자체 예산 또한 그만큼 있어야 제대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협회의 재정을 돕기 위해 많은 회원들의 각별한 성원과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의안건 심의에 이어 총회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친 강우혁 회장단과 임원진의 뒤를 이어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이번 국고보조를 책정하는 데 있어 아낌없는 협조를 해줬던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지대섭 의원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으로는 역시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인 권용태 회원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인 신세화 현 부회장이 각각 추대되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등단한 지대섭 신임회장은 재헌국회 이래 역사의 사관으로 일해 온 속기사들에 대한 위로의 말과 함께 "앞으로 협회와 속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한 후 "우리 속기인들이 일치단결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는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제 협회는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이라는 뜻을 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국제화·세계화의 시대로 많은 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한속기협회도 이날 있었던 총회의 분위기를 좀더 차원높게 승화시켜야 하며, 회원들도 스스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으로서 자기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신임 임원진 ■



지대섭 회장

약력
국회의원(자민련)
광주고·한양대(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수료
청호컴퓨터 회장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 명예회장 : 이세기(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장)
- 회 장 : 지대섭(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 상임고문 : 김진기, 정원도, 안인영
- 부 회 장 : 권용태(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세화(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이 사 장 : 성천영(국회 속기 1과장)
- 총무·재정이사 : 이경식 (총무부장:한기수, 재정부장:김영중)
- 사업이사 : 신회동(부장:김덕진), 회원이사: 이주성(부장:안기철)
- 홍보이사 : 김선옥(부장:최윤정), 국제이사: 엄덕훈(부장:김은숙)
- 자격심사위원장 : 하양배 (간사:홍기표)
- 연구위원장 : 김창진
- 이 사 : 김기영, 최황수, 홍순관, 한동춘, 박정호, 손재욱, 김점동
- 감 사 : 황인하, 김선필



권용태 부회장



신세화 부회장



성천영 이사장

협회 동정

제 2 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실무세미나

새로운 회의록 작성법에 큰 관심

지난 '96년 11월 6일 경상북도 도청 강당에서 대한속기협회 주최,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후원으로 '제2회 속기 및 회의록작성실무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교재정리 및 인쇄, 참가자 접수, 행사장 준비 등이 대구·경북지역 속기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다 처음으로 지방에서 주도한 세미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회 임원들을 비롯한 23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강우혁 전 회장은 신세화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강조되는 때"라고 전제한 후 "지금의 여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모두 힘을 합쳐 소임을 다할 때 속기인의 역할이 중시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의 환영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의회 속기사는 지방의회의 산 증인으로서 의정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으로서, 또 지방자치의 발자취로 남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의회 속기직 신설 및 직급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환영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 오전에는 황인하 전 이사장이 '속기사의 사명과 자세'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속기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 순간순간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관으로서, 이것이 천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당부한 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려면 인생관리를 잘해야 된다면 일제로 건강관리, 시간관리, 금전관리, 재물관리, 정서관리 등을 꼽았다.

오후 첫 시간에는 '지방자치법규 및 의회운영'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정연수원 서우선 연수부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의에선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시간관계상 결국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참가자중에는 속기사가 아닌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회운영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듣고자 온 사람들이었다.

서우선 연수부장의 강의에 이어 '회의록 작성'에 관한 홍순관 국회속기 2과장의 강연이 이어졌는데, 강의내용이 96년도 국회회의록의 변화된 내용이었고, 또 참석자 대부분이 회의록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



▲제2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실무 세미나 장면

문들이 많이 쏟아졌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각종 첨단장비 동원

마지막으로 대구중구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태원씨가 '정보화사회와 PC통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보의 바다라 일컫는 PC통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속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는 '속기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다.

한편 강단 벽면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컴퓨터와 프리젠테이션을 설치, 입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동시에 정면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세미나 분위기가 한층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며, 세미나 중간중간 휴식시간에는 대한속기협회의 역사와 그 동안의 활동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뮤직비디오를 틀어 참가자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속기사들의 세심한 배려 속에 준비된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획일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각종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배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큰 관심사였다.

그리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성공적인 세미나였다는 반응을 보여 그 동안 국회내에서만 개최되던 세미나가 중앙을 탈피, 지방에서 개최됨으로써 지역속기계의 발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속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아니라 지방속기사들에게 협회업무를 분담해 줌으로써 협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임과 동시에 협회 회원 확보 및 협회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참가자들에게 교통편이나 숙박 편의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된다.

협회 동정

제171차 이사회 개최

지난 '97년 5월 29일 오후 2시 대한속기협회 제171차 이사회가 문체공위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원개정에 관한 건의(국무총리실·내무부에 공문 발송) ▲내무부 담당과 방문 결과 등이 보고되었고, 이어 '97년도 6,7월 사업보고 및 계획이 다루어졌다. 이날 이사회 주요 확정계획 사항은 ▲'97세미나 및 속기경기대회(사업부) ▲인터스테노 참가계획(국제부, 5월 31일 신청 마감) 등이었고, 기타 사항으로 ▲방학강습 여부(연구위원회), ▲지부결성문제(회원부), ▲발전기금 확보와 사용방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제 172차 이사회 개최

97년 6월 9일 오후 2시 대한속기협회 제172차 이사회가 국회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출(문체부) ▲97년도 국고보조금교부결정 통보접수 등이 보고 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정관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빠른손워드속기와 CAS의 단체회원가입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7속기협회 세미나 개최 예정

대한속기협회는 97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 양일간 전북 무주군 소재 무주리조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속기계 50년을 되돌아 보고 속기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속기의 발전과 능력 제고, 회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세미나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는 1997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지대섭 회장과 권용태 부회장을 모시고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에 참석할

■ 지방의회 소식 ■

- 경기지부(전국지방의회속기사회)
 - 97년 5월 14일 수원시청에서 발족
 - 회 장 : 임용준(수원시의회)
 - 부회장 : 홍성분(남양주시의회)
 - 총 무 : 김미혜(수원시의회)
- 전국속기사 간담회
 - 5월 4일 12시에 대전 극동대반점에서 개최
 - 대한속기협회 산하 전국지방의회속기사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56명의 회원이 참석, 속기사회 및 협의회 구성안, 회칙과 협의회 및 가구의 직무에 대한 보고와 회장 및 임원이 선출되었다.
 - 회 장 : 김영서(대구 달서구의회)
 - 재무국장 : 이기옥(경남도의회)
 - 총무국장 : 김일호(충남도의회)
 - 사업국장 : 신종식(대전시의회)
- 전국지방의회속기사회 게시판(운영부장 윤태원) 개설(1997.5.16)
 - 전국지방속기사회 게시판을 속기동 속기정보센터 안에 개설하였다.
 - 속기동 메뉴화면에서 SIC-1-9하면 되고, 속기사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게시된다.

예정이다.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 1·2차회의 열다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와 그 궤를 함께 하는 한국속기계의 발자취와 속기문화 발전 50년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한국속기50년사를 정립하고자 발간하는 《한국속기50년사》의 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일과 6월 14일 2차례 걸쳐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5월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의 임원진은 위원장에 권용태 부회장이, 위원에는 신세화 부회장, 전해성 자문위원, 송기철 자문위원, 김순철 회원, 조우석 회원, 김기영 이사, 황인하 감사, 유순태 회

원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정호 회원과 간찬기 회원이 선임되었다. 특히 1차회의에서는 《한국속기50년사》목차 구성과 집필자 선정, 그리고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6월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목차 구성 위원으로 선임된 신세화 부회장과 김순철·유순태 회원 등 3인이 마련한 구체적인 목차안에 대한 위원들 각자의 의견개진이 있는 다음 집필자 선정 소위가 구성되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용태 부회장, 책임집필에 신세화 부회장, 주필에 유순태 회원, 간사에 박정호 회원이 선임되었다.

알 림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속기50년사》편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문헌·논문·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속기50년사》 편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락처 〉 《한국속기50년사》 편찬위원회 간사 박정호(TEL : 02)788-2372)

소식지 기사판

지방의회 속기직 공무원 일반직화

지난 4월 22일 대한속기협회에서는 국무총리실과 내무부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건의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5월 16일 협회에서는 내무부 지방행정국을 방문하여 지방의회 속기사들에 대한 현황을 구두로 전달하고 건의서가 채택되어 법제정이 이루어 지도록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내무부에서는 현재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속기사를 일반직화 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속기사자격검정업무 이관 검토

현재 노동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는 속기사 자격검정업무를 '97년 3월 27일에 공포된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국가기술자격법중 개정법률에 의해 민간 전문기관이 자격검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협회에서 이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격검정시험을 본협회가 위탁 시행함으로써 정통 속기협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부설립문제

최근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대거 입회함에 따라 지역별 지부설치가 현안과제로 떠올랐다.

본 대한속기협회 회원부에서는 지부설치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지방현황 파악을 계속함과 아울러 금년에 우선 경기도·인천과 충남·대전지역을 선정, 지부결성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와같이 향후 사업확대를 통하여 협회는 명실공히 전국 조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발전기금

'96년 3월 8일 개최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소

기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협회운영·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회원 모두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협회의 발전과 목적사업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수련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약3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 바, 이사회에선 3억원의 기금조성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 속기협회발전기금현황 및 기부자명단(無順)

강수현	300,000
전혜성	300,000
최석모	300,000
신세화	1,000,000
박광택	300,000
이영렬	300,000
고태중	300,000
황인하	300,000
김진기	500,000
이상호	300,000
박정호	300,000
김기영	300,000
정명길	300,000
신현종	300,000
송기철	300,000
성천영	300,000
염덕훈	300,000
이경식	300,000
최복임	100,000
윤희익	100,000
김춘원	30,000
유순태	100,000
홍순관	300,000
신희동	300,000
김창진	300,000
김선옥	300,000
손재옥	300,000
국회속기사양성소 동문회	100,000
빠른손위드속기	2,000,000

협회발전기금으로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의무가 평생 면제된다.

- **납입창구** : 농협 국회지점 036-01-079560(예금주 신세화)
- **문의**
신세화 부회장(788-2161)
성천영 이사장(788-2339)
이경식 총무이사(788-2374)
김영중 재정부장(788-2371)

신간안내

귀동남에서 눈어림으로 본 일본이야기

한국증권협회 상무인 서병운 회원은 전 국회사무처 속기와, 입법조사관, 입법심 의관으로 근무하다가 '86년 6월부터 '89년 6월까지 주일본 한국대사관 국회주재관으로 근무할 때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기억들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필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에 가서 살아야 할 분, 일본인들과 만나야 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진솔하고 소박하게 그려져 있다.

(서병운 저 / 송암문화사 발행 / 238쪽)

공무원을 위한 훈글 잘 쓰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속기사 윤태원씨가 공무원을 위한 <훈글 잘 쓰기>라는 책을 냈다. 요즘 관공서의 컴퓨터에 훈글이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글의 방대한 기능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1부에서는 훈글의 기초개념부터 기본적인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2부에서는 공무원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의 작성 비법과 생활문서의 다양한 편집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공문서 작성시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할 수 있으며, 책에 제시한 대로 차근 차근 따라서 하면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공문서 작성이 될 것이다.

(윤태원 저 / 한글과컴퓨터 발행 / 221쪽 / 값 4,000원)



국회 한보특위 막 내려

제183회 임시국회에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한보특위)를 구성하고, 2월 18일에 신한국당 10인, 국민회의 5인, 자민련 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인 등 19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신한국당의 현경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로는 신한국당의 박헌기 위원, 국민회의의 이상수 위원, 자민련의 이인구 위원을 선임했다.

한보특위는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45일간을 국정조사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중 2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 3개 기관에 대한 현장검증 및 15개 기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태수 총회장과 김현철씨 등을 비롯한 38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한보특위는 ▲한보철강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공장 건축, 사업, 코렉스공법 도입 등 각종 인·허가 문제 ▲한보그룹 거액 대출 부도처리 및 사후수습과정 문제 ▲한보그룹 대출금 유용 및 비자금 조성과 사용 문제 ▲한보그룹과 관련한 부정비리, 권력 외압여부, 행정감독 사항 문제 ▲김현철씨의 전반적 국정 개입 의혹 문제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한보특위는 청문회 방식에 의해 TV로 생중계되었으며, 청문회에 쏠린 엄청난 국민적 관심에 비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다. 한보특혜 배후, 대선자금, 김현철씨 문제 등은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고, 증인들의 출석거부, 의원들의 질의태도, 의원들의 자료확보 어려움과 준비 소홀, 위증에 대한 처벌장치 미비 등 청문회의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앞으로의 청문회가 진실규명의 장으로서 정착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보의 부도과정과 배후, 김현철씨 국정·이권개입, 김현철씨 사법처리, 대선자금

○ 청문회란?

‘청문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로서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관련자 등을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시켜 증언·진술토록 하여 청취된 증거를 채택하며, 불출석·증언거부·허위증언의 경우 처벌을 함으로써 증언을 강제하여 사안의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유도한 것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

발언후 1시간 후에 회의록 초안을 볼 수 있는
스위스 국회회의록 작성시스템에 높은 관심

제97차 IPU(국제의회연맹) 서울총회가 세계 140여개국 1,300여명의 각국 의회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서울총회의 ASGP(의회 사무총장회의)에서는 스위스 국회회의록 작성 시스템의 자동화에 대한 보고에 각국 의회 대표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월 12일 스위스 대표단이 컴퓨터 Projecter를 사용하여 소개한 회의록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장의 의장 옆에 앉아 있는 2명의 타자수가 발언을 청취,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함과 동시에 발언내용을 녹음한다.
- ② 1인이 5분 정도의 발음량을 하나의 sector로 분류하여 발언자의 이름, 주제 등의 라벨을 붙여 메인컴퓨터로 전송한다.
- ③ 회의록 발간 사무실의 PC 앞에 있는 타자수가 메인 컴퓨터로 받은 발언기록을 녹음된 내용과 대조하면서 수정한 후 컴퓨터를 통해 의원사무실로 전송한다.
- ④ 발언 후 1시간 뒤 의원은 회의록의 초안을 볼 수 있고 이를 수정한 후 다시 발간 사무실로 전송한다.
- ⑤ 발간 사무실에서 최종 수정한 후 출판사로 전송하여 회의록을 발간한다.

스위스 회의록 시스템은 의원발언 후 1시간내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신속하여, 인쇄비용의 50%가 절감되고 전자 BOLLINTIN 및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CD롬 1장으로 4년간의 국회활동을 수록할 수 있어 도서관 서고의 공간 절약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휴게실

같이 듣고 싶은 음반

성큼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마음도 가라앉기 쉽다. 이럴 때는 차라리 우울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자.

토마소 비탈리의 샤콘느 G단조 - 바이올린의 절규에 귀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정정화라고 하나?

훌륭한 연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이페츠,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음반을 추천하고 싶다.



국회회의록 전문 지원 시스템 개발 가동

국회회의록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온라인을 통한 회의록 검색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회회의록 전문 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 가동 중이다.

제헌국회에서부터 제14대까지의 국회 회의록은 전문을 이미 지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중이다.

그리고, 제15대 국회 이후의 회의록 전문은 Full Text로 누적 등록된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국회 내에 LAN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이 정비 완료되는 대로 행정부·사법부·주요도서관 및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97년도 국회 9급 속기직 공채 최종 5명 합격

지난 4월 20일과 5월 2일 양일간에 걸쳐 '97년도 9급 속기직 공채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번 시험은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채용 예정 인원은 수필속기 3명, 컴퓨터속기 4명 등 총 7명이었고, 응시자 수는 수필속기 44명, 컴퓨터속기 37명으로 각각 14.6:1, 9.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4월 20일 실시한 1차 필기시험 결과 수필속기는 13명, 컴퓨터 속기는 4명이 합격했으나 5월 2일에 실시한 2차 실기시험에서 수필속기 3명, 컴퓨터 속기 2명이 합격하여 22일 면접을 거쳐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필속기 : 오근순, 유미형, 이범준

▲ 컴퓨터속기 : 유점임, 정향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EQ에 대하여

EQ란 Emotional Quotient의 약자로 감성지수를 말한다. IQ(지능지수)가 지능의 높고 낮음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면 EQ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다스리고 파악하는 능력이다. EQ는 90년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피터 셀로비 교수와 뉴햄프셔대 존메이어 교수의 공동연구에 의해서 처음 쓰여졌다.

이를 대중화시킨 것은 미국의 심리학 박사이며 뉴욕타임스 과학전문기자인 대니얼 골먼이 '95년 출간한 저서 《감성지능》을 타임지가 커버스토리 다룬면서부터이다.

그에 따르면 인생의 성패는 IQ가 아니라 EQ가 좌우한다는 내용으로 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②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 ③ 스스로에 대해 동기부여하는 것, ④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아는 것, ⑤ 인간관계를 원활히 다룰 수 있는 것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현대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와 협동을 중시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주장이다.

EQ의 유행과 더불어 문맹, 색맹, 컴맹과 같은 감맹이란 말도 등장했다.

EQ가 매우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감맹이란 곧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감맹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① 타인감맹 -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 ② 자기감맹 - 자신의 정서 및 기분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매우 화가 나 있는데도 화가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화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자신에게도 피해가 된다. ③ 공감감맹 -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상태와 같아지는 능력이 모자란다. 반대로 공감능력이 발달된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볼 때면 주인공에 동화돼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세가지 감맹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타인감맹이다.

회원 마당

빛진 자의 마음으로

찬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산하게 들어오는 텅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기면서 "아, 재미있어" 소리가 나오던 기간이 있었고, 나는 "이런 합격기를 써야지" 하고 감히 생각해 본 날이 있었는데, 막상 뭔가를 쓰려 하니 쉽지가 않다.

내 인생의 계획에는 전혀 있지도 않았던 속기와의 인연은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가는 격이었다. 계획의 차질에 대한 낭패감을 곱씹으면서 큰 의미없이 시작한 속기가 이렇게 긴 세월 끈질진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철딱서니 없던 20대, 정신없이 바빴던 30대를 지나 40대에 이르니 울것 같지 않고 멀리만 느껴지던 승진의 기회가 내



손재욱 회원

게도 왔다.

뒤늦게 책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없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 애쓰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려 했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생각이 많아졌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였던 하나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던 주위 분들, 그리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나를 늘 넉넉하고 푸근함으로 지켜봐 준 가족들과 또한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승진이 내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기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까지 잊고 살았던 모든 것들에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며 열심히 살리라. 그리고 먼 훗날에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겸손되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일구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손재욱 회원은 74년 6월 국회사무처에 입사하여 97년 2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 현재 속기2과 3담당으로 근무중

토끼와 거북이

컴 퓨터속기(CAS)의 선구자라는 내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안고 국회에 입사한 지 열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CAS에 관심을 보여오던 선배가 양손에 커피를 뿔아들고 나를 찾아왔다. 물론 얘기의 주제는 CAS였고, 선배는 내게 궁금증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CAS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교육과정에 대해, 또 회의장에서 어떻게 실무를 하는지 등등 차근차근 얘기를 이어갔다. 턱을 킁 채 진지하게 내 설명을 들으며 때론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의문이 생기면 되물곤 하던 선배는 나의 장구한 CAS강의(?)가 끝나자 통명스레 한 마디를 던졌다.

"근데, 원고 나오는 시간을 보면 CAS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더라, 얘."

입사 후 한 차례의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선배들이나 동기들로부터 종종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때마다 씩씩한 기분은 숨길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CAS의 신속성에만 너무 기대가 컸던 때문인지



이봉선 회원

나의 입사 초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어려운 숙제였다.

"신참이 원고 늦는 건 당연하지"라며 위로해 주는 선배의 말이 내겐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지금에야 말이지만 그저 빨리 내려는 욕심에 성의없는 원고를 넘긴 적도 있었다.

"속기가 이런 것이구나"하고 조금 알게 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눈이 빠져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넘긴 원고에서도 '미운 오리새끼'처럼 틀린 게 꼭 한두 개씩은 눈에 띄기 마련이었고, 선배나 계장님의 알뜰도록

정확한 지적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바보같이 애꿎은 뒤통수만 긁어댔다.

그래도 나 자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했었지만 조금만 생소한 용어가 나와도 허둥대는 내 모습에 "어찌 이리도 무지하던 말인가"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되뇌이고 있지 않은가.

이제 속기도 좀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바뀌어 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로 자신을 계발하지 않으면 "속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난 속기사업이 대견스럽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속기사가 되고 싶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 새로 한식구가 될 후배들에게도 바라건대 우리 모두 꽤 많은 토끼가 되기 보다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북이가 되자고요, 네?

이봉선 회원은 95년 9월 국회사무처에 입사, 현재 속기1과에 근무중

회원 동정

퇴직·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일 (기록편찬국장) / 정년퇴직
- 윤병직(속기2과) / 정년퇴직
- 박보화(자편과) / 정년퇴직
- 강서홍 / 정년, 국회사무처 (96.12.31)
- 김영춘 / 정년, 국회사무처 속기2과 (96.6.30)
- 김원주 / 정년, 국회사무처 자료편찬과(96.6.30)
- 서일순 / 의원면직, 속기2과(97.3.3)
- 이정구 / 의원면직, 속기2과(97.2.3)
- 채강희 / 명예퇴직, 속기1과(96.5.31)
- 노장우 / 명예퇴직, 속기1과(96.6.30)

전보·수고하셨습니다 → 반갑습니다

- 강종원(부이사관) / 자료편찬과 → 특별위원회(96.7.25)
- 김선필(서기관) / 속기2과 → 속기1과 편집담당(96.6.14)
- 송기철(부이사관) / 국회운영위원회 → 통신과학기술위원회 (96.7.25)
- 신회동(속기사무관) / 속기1과 → 속기2과 편집담당(96.6.14)
- 엄덕훈(속기사무관) / 속기2과 → 속기1과 1담당(96.1.22)
- 이승철(속기사무관) / 속기2과 → 국회사무처(96.5.3)
- 하양배 / 도서관 총괄담당 → 도서관 총괄담당관(96.8.6)

파견 및 복귀·수고하셨습니다

- 손숙자 / 의정연수원 국회 속기사양성 소과견(97.4.17~98.4.16)
- 고석광 / 의정연수원 → 속기2과 복귀 (97.4.17)
- 이승철(사무관) / 미국 피츠버그주립 대학 해외교육훈련 파견 (96.8.21~98.8.20)
- 황인하(부이사관) / 의정연수원 파견 연장(97.2.1~98.1.31)

전 임·수고하셨습니다

회원 문예 / 시조

장마 앞에서

한 어드레
비온 뒤 끝
물 넘친 개울가
청개구리 같던 유년(幼年)

학교길의 하얀 고무신
탱자나무 높다란 옥타리
칭칭 갓아 오른 수세머꽃
그때 우리 모습

자고나면 황토묵에
퐁퐁 붉은 아진머다
무거운 빗줄기 벽차 하던
살 부러진 지우산(紙雨傘) 하나

지우지 못해
지급도 노오랗게
피고 있나봐

송혜경 회원

서로 쓰겠다고 다투던 동생과 나
내 등허리를 닦사리 빗자루로
내어놓던 어머니

송혜경 회원은 '71~'74 국회 속기사
95년 5월 중앙일보 시조백일장에서 장원
95년 8월 중앙일보 차하(次下)
95년 10월 「시와 산문」사를 통해 등단

눈물 빗물 천덕대는

- 현병고(서기관) / 의정연수원-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96.8.7)

승진·축하합니다

- 강서홍 / 국회사무처 서기관 → 부이사관(96.8.5)
- 김치원 / 서기관(농림수산위)-부이사관(농림수산위 입법조사관)(96.8.7)
- 손재옥 / 사무관(속기2과3담당) (97.1.22)
- 신회동 / 사무관 → 서기관(속기2과 편집담당) (96.8.7)
- 이경식 / 사무관(속기1과 4담당) (96.5.3)
- 장숙경 / 사서사무관 → 사서서기관(도서관 참고봉사국 신간자료 담당) (97.1.8)

임명·수고하십시오

- 채강희 / 권수장의원 보좌관(96.6.11)

신규임명·반갑습니다

- 오근순 / 국회사무처 속기1과(97.6.7)
- 유미형 / 국회사무처 속기1과(97.6.7)
- 유정임 / 국회사무처 속기1과(97.6.7)
- 이범준 / 국회사무처 속기2과(97.6.7)
- 정향인 / 국회사무처 속기2과(97.6.7)

포상·축하합니다

- 김재학(속기1과) / 모범공무원상 (97.1.3)
- 배영수(속기1과) / 총장표창(97.1.3)
- 조영기(속기2과) / 의장표창(97.1.3)
- 홍순관(속기2과장) / 근정포장 (97.5.31)
- 안순희(속기2과) / 의장표창 (97.5.31)
- 장미경(속기1과) / 총장표창 (96.5.3)

결혼·행복한 가정 꾸미세요

- 이시정(국회사무처 속기2과) / (96.12.22)
- 이해경(경남도의회) / (97.4.27)
- 최윤정(국회사무처 속기2과) / (97.5.25)

대한속기협회소식지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土友會
전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5기
회장 박보화

六波會
전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6기
회장 김순철
총무 서재덕

국회속기사양성소동문회
회장 박정호

변호사 이우윤
송해경회원부군
☎02)522-1055~7

법무사 金謙善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83-2
☎0346)66-3279, 63-2966

법무사 梁源龍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1-56
(강북구청앞)
☎02)902-8101

법무사 鄭明吉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09-6
주공APT상가203호
☎032)433-1230~3

朴光澤
시화기름나라주유소대표
☎0345)432-5151~5678
(9월오픈예정)
부동산 임대, 자동차정비, 계량증명업

盧承英
월간항공 에어스포츠
(주)와스코 사장
☎02)3663-301, 659-4011

李德九
☎0342)718-8578~9

서울시의회 속기사 일동

유순태
도움사 대표
☎02)998-8777~9
서울 강북구 수유전철역
가든타워빌딩 1520호

투고를 기다립니다

- 회원 동정란
승진, 인사, 결혼, 개업, 이직, 출판 등
- 지방의회 소식
각 지방의회 소식 (정기회, 임시회 등 회의 관련)
- 컴퓨터 관련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윈도우95 활용, 한글 3.0의 실무적용 프로그램 소개, PC통신 '속기방'의 시삽 개설, 기타 지방네트의 소개 및 활용
- 동호인란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모임 소개, 모집이나 결성
- 베품시장
회원상호간에 필요한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기증하는 코너
- 회원참여마당
시, 수필, 시조, 풍토, 제언 등
- ◆ 기 간 : 연중 계속
- ◆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 ◆ F A X : (02)788-3386~7 (수신자 : 서현숙)
- 기자 : 최윤정, 장미경, 서현숙, 이시정, 정 숙

題字 : 嬋字 李 戊 熙